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10호

2019.08.23(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시간 충분히 졌다!

다음주 교섭까지 일괄타결안 마련해라!

20일 중앙교섭 의견접근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20일 의견접근을 이뤘다. 내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은 통상시급 8,680원, 월 통상임금 1,961,6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최저임금 보다 90원 높은 수준이다. 또 하청, 하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일터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부, 축소교섭 열었지만 의견접근 못해

중앙교섭 타결 이후 22일 열린 10차 지부교섭은 축소교섭까지 열면서 노사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양측 모두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갖고 축소교섭까지 열었지만 최종적으로 의견접근까지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지부 교섭위원들은 다음주 교섭에서 임금까지 의견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일터괴롭힘 금지, 총고용 보장 요구에 대

해 만족할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터괴롭힘 금지는 중앙교섭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자는 지부의 제안에도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축소교섭을 통해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한 내용에도 못미치고 있다. 사측은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일터괴롭힘에 포함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총고용 보장에 대해 사측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06년, 2009년 지부교섭에서 조합과 공동 결정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지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기존 합의내용이 있는데도 유독 올해는 고용보장 요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주 일괄타결하자!

지부는 다음주 교섭에서 임금인상안까지 포함해서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지부교섭 타결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 확인된 의견차이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무의미한 버티기는 중단하고 타결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차 교섭 속기록

다음주 임금까지 제시해라

사 : 요즘 지부장, 지회장 포함해서 간부들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어수선하고 어렵다. 이 상황에서 회사 생존과 고용안정을 어떻게 할건지 경영자로서 고민이다. 지회장 포함해서 간부들한테 항상 지나 회사 직원들 다 먹고 살려고 왔는데 슬기롭게 지혜 모아서, 어려울 때는 살아남는게 제일이다, 해보자고 한다. 중앙교섭도 어렵게 타결됐고 지부도 초기에는 기업이 어려움까지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서 걱정이 많다. 지부도 지혜와 결단을 내려서 뭔가 타결해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한다.

노 : 한일 무역분쟁 이후에 자동차는 호황이다. 연초에 잡았던 매출보다 상회해서 잡는 걸로 안다. 일부 자동차 부품사 아닌 곳에서는 어려움이 있는걸로 안다. 그건 내수 침체가 한몫 한다고 생각한다. 교섭 초창기에 말했는데 내수침체가 이대로 가면 그동안 해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으론 해결 안된다는게 증명되는거다. 그거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한다. 당장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매면 해결이 안된다. 어제 현대차 노조 간부에게 들어보니 사측이 상당히 얼굴표정 관리가 안된다고 하더라. 일본차가 안팔리고 내수차로 몰리니 표정관리 한다고 하더라. 한일 분쟁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등한시 한 기초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능력있는 기업, 잉여금 많이 남긴 기업에서 돈을 풀어줘야 장기적인 내수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오늘 교섭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지난 번에 말한 것처럼 임금동결이 아니라는 제시안 있으면 좋겠다. 전체 제시안 보고, 실무교섭을 해서라도 마무리했으면 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접근볼 수 있게 노력하자.

사 : 지부장 말대로 사측도 최대한 오늘 많은 논의로

합의 도출했으면 한다. 제시안 준비했다.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축소교섭으로 진지한 대화 나누자.

14:10 정회 <축소교섭 진행> 18:10 속개

노 : 실무에서 노조가 많이 양보하고 의견 좁혀보자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일터괴롭힘은 중앙교섭에서 합의해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없다. 저성과자 유도,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일터괴롭힘이 실제로 유성, 갑을에서 있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부담 없을 거다. 고용보장은 올해, 내년 조합원들도 위기를 느낀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약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요구한 거다. 경영상 정말 불가피하면 그건 열어둘 수 있다. 고용을 완전히 틀어막는게 아닌데 타결 안돼서 아쉽다. 조합간부 유급 교육시간도 생산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면 이걸 회사가 생산차질 있다고 하면 안되는거라, 충분히 믿고 하는거라면 삭제하는게 좋겠다. 업무시간외 근무지시 금지도 회사 입장 고려했다. 회사가 노조에 정말 불가피하다고 협조 구하면 되는데 안타깝다. 정년연장은 실무에서 1개 사업장에 대해 요구한 걸로 아는데, 대폭 양보했다. 법적으로도 추진되는 사항이라 우리가 1~2년 먼저 시행하느냐 차이 정도이다. 법보다 먼저 시행하면 조합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측면에서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현장에 들어가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이 필요한데도 정년자 내보내고 다시 채용한다. 이런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일괄타결을 원한다. 시간을 더 달라니 시간 드리겠다. 다음에는 기본급까지 제시해주셔라. 오늘 의견접근 보면 임금을 지회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의견접근 안돼서 내려보내기 어렵겠다. 지회랑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다음주에 임금안 제시해주셔라. 지부교섭에서 임금까지 다 해결해보자.